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THURSDAY, May 21, 2015 Vol. 483



제8회 라이팅 커뮤니티 서밋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백악관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빛을 비추라” 워싱턴DC에서 아태계 지도자들 한 목소리

KCCD 주최 서밋에서 미국 위한 아태계 신앙 공동체 역할 논의

미국 내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출신 크리스천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기독교 가치관으로 어떻게 미국을 변화시키고 커뮤니티를 섬길지 의견을 모았다.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가 제8회 라이팅 커뮤니티

서밋(Nation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을 “Shining Out Light - Building Our Leadership and Future Together”란 주제 아래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었다. 이 서밋에는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비아시안 정계, 재계 지도자들도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서밋은 아태계 신앙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주목하면서도 아태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를 나누었다. 첫날 참석한 마크 김 베지니아 주 하원의원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3일 동안 보다 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 네트워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일정 동안 참석자들은 리셉션 행사, 조찬 기도회와 예배, 의회 방문, 참여자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킹 시간에 참여했다.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백

액관 고위 지도자들과의 면담이다. KCCD는 지난 제7회 행사에서 처음 백액관에 초청됐으며 올해도 면담이 성사됐다. KCCD의 임혜빈 회장 등은 이 시간을 통해 한인은 물론 아태계 크리스천들의 현안들을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윤형 기자

## 미국 내 이슬람·무신론은 증가하는데 기독교는 급감

퓨리서치센터 종교 지평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비종교인과 타종교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퓨리서치센터의 “미국 종교 지평의 변화” 조사 결과 기독교 대국이었던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2007년 78.4%에서 2014년 70.6%로 감소했다. 이 조사는 3만5천명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 개신교 가톨릭 모두 감소 추세

같은 기간 개신교인은 51.3%에서 46.5%로 줄어들었다. 그중 복음주의 개신교는 26.3%에서 25.4%로 줄어들어 그나마 가장 적은 감소율을

보였지만 주류 개신교는 18.1%에서 14.7%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미국에서 소위 메인라인(mainline)이라 부르는 주류 개신교는 연합감리교회(UMC), 미국침례교회(ABC), 복음주의루터교회(ELCA), 미국장로교(PCUSA), 미국성공회(TEC) 등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

가톨릭도 23.9%에서 20.8%로 감소했다. 2007년 0.6%였던 정교회, 1.7%였던 몰몬교는 각각 0.1%씩 감소했고 특이하게 여호와의증인만 0.7%에서 0.8%로 증가했다.

### 이슬람은 2배 이상 성장

기독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타종교는 성장 중이었다. 타종교인들

은 4.7%에서 5.9%로 증가했는데 이 중 가장 큰 증가는 역시 이슬람이었다. 이슬람은 0.4%에서 0.9%로 2배 넘게 성장했고 힌두교도 0.4%에서 0.7%로 크게 성장했다. 유대교는 1.7%에서 1.9%, 불교는 0.7%에서 변화가 없었다.

### 무신론, 불가지론, 무관심 모두 증가

비종교인도 16.1%에서 22.8%로 급증했다. 이중 무신론자는 1.6%에서 3.1%로 크게 증가했고 무신론과 유신론을 모두 배격하는 불가지론자도 2.4%에서 4.0%로 증가했다. 특별히 관심이 없다는 사람도 12.1%에서 15.8%로 증가했다.

김준형 기자

## 100일째 감감 무소식

北 억류 임현수 목사 가족들 도움 호소

북한에 억류 중인 캐나다 국적 한인 목사 임현수(60) 목사의 가족들이 임 목사와 연락이 끊긴 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고 16일 CNN이 보도했다.

100일 동안 임 목사의 가족들은 그의 건강 상태나 무슨 혐의로 북한 당국이 임 목사를 체포했는지 듣지 못했다. 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캐나다 토큰토큰빛교회의 리사 박 대변인은 “임 목사의 가족들은 그 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이웃 주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

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임 목사가 가족의 뜻과는 달리 북한의 수용 시설에서 부활절과 환갑을 맞이했으나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며 “그와 통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7일 캐나다를 떠난 임 목사는 같은 달 30일 북한 나진에 도착했으며 이후 31일 평양으로 들어간 후 연락이 두절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도 그의 억류 사실은 시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 않고 있다.

**나라정비**  
나라오토덴트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겐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www.sierra-hospice.com Tel:(213) 380-1100 Cell:(213) 700-6989

박영실 간호부장

## 코헨신학대학교(CUTS)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 제27회 학위수여식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코헨신학대학교는 Vision 153 World Mission을 위해 세워진 대학교이며,

최종 목표는 Vision 153을 완성하여 기독교 UN을 설립하는데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27회 학위수여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왕립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목표** Vision 153 World Mission

**현재** 2015년 5월 29일 현재 전세계  
109개국 코헨위성모체신학대학건설  
(71% 완성)

법인이사장 Dr. Merilline Cohen, D.D.  
법인총장 Dr. Ronald Vandermey, Th.D., D.R.E.  
부총장 Dr. Carol Spanier, Ph.D.  
국제총장 Dr. Gary G Cohen, Th.D., Litt.D.  
대학원장 Dr. William Stinde, Ph.D.  
박사원장 Dr. Vance Vandermey, Th.D.  
행정학감 Dr. Sarah Kim, Th.D., Ph.D.

**제 41차 코헨 국제 세미나**

주제 : Hebrew Thinking!  
일시 : 2015. 5. 25-30  
장소 : 코헨신학대학교 대강당

**제 27회 코헨 신학대학교 졸업식**

일시 : 2015. 5. 29 오후2시  
장소 : 코헨신학대학교 대강당

▶약도



## ‘편안한 임종’ 돋는 호스피스 케어 세미나

비용부담 없고 유가족 위로 서비스 혜택까지



김성준 목사(시에라 호스피스 원목)가 ‘호스피스 세미나’ 개최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환자에게는 평안한 임종을, 그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호스피스 케어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실제적이 고도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한 인 커뮤니티를 돋기 위한 ‘호스피스 케어 세미나’가 16일 오전 10시~12 시까지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엘에이 한인타운 가주영어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올해로 3회 째이며 김성준 목사(시에라 호스피스 원목), 김은진 간호사(카이저병원 호스피스), 그리고 박영심 대표(시에라 호스피스 케어/H&M 호스피스 케어)가 차례로 나서서 호스피스 케어의 목적과 그 이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돋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준 원목은 “19세기 경에만 해도 65세 이상의 생존율은 3%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13%까지 증가했다. 그 중 17%는 장기간 의료 기관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나머지는 의료 양로센터나 간호보호 기관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편

안한 임종 맞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는 환자들의 소원대로 집이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돋는 서비스이다”라고 했다.

김은진 간호사는 “호스피스로 판정받은 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순간순간 찾아오는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며 “호스피스 케어는 치료가 아닌 증상완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간호가 환자 중심으로 24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심 대표는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크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메디케어A나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절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개인보험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가 현재 받고 있는 간병서비스나 소셜 혜택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기관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호스피스 케어 혜택을 받게 되면 담당 간호사는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양로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환자를 보살피게 된다. 또 필요시에는 8시간 지속적으로 환자와 함께 하면서 간호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 물리치료나 언어치료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처방약과 의료용품 등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환자가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병원용 침대 등 필요한 병원의료기기도 공급된다.

또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신고 등 모든 법적 절차 및 장례 절차를 신속하게 대행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 사후 약 13개월간 지속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기도 하다.

부분의 호스피스 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감, 우울증, 분노, 절망감, 무기력증 등의 정신적인 고통도 크다. 이러한 영적 문제 해결에 도움주기 위한 상담과 서비스도 제공된다.

호스피스 판정은 각종 암이나 치매 등 난치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나 6개월 이하 시한부 환자가 주 대상이다. 그 외에도 노환 등으로 환자나 그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에서는 호스피스 케어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섬기고 있다. 이 과정을 끝내면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어느 기관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문의는 전화 213-700-6989(박영심 간호부장)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찰스 김 회장, 이용규 전 회장 등 로터리클럽 관계자들이 가정상담소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돋기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 가정폭력 피해 여성 위해 사용해 주세요

5월 19일 LA코리아타운 로터리 클럽이 한인가정상담소에 2,500달러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임인 “라이프 비욘드”的 운영과 활성화에 사용된다.

가정상담소는 “이 후원금을 통해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을 제공하고 피해 여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돋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213-389-6755

김준형 기자

## 고교 졸업생 전원 美 명문대 합격

명문 기독 사학, NCA 제16회 졸업식



NCA가 제16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12학년 졸업생들은 전원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다.

명문 기독교 사립학교인 새언약초 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 이하 NCA)의 16회 졸업식이 지난 14일 오후 6시 교내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킨더 과정 10명,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1명이 각각 졸업했다.

NCA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2학년 전원이 유펜, 코넬, USC, 휴튼, 뉴욕대 등 미국 내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뤘다.

NCA는 WASC 정식 인준 학교이며 IB(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와 안전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특히 신앙과 열정을 갖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로 알려져 있다.

도 신앙과 실력, 그리고 인성을 갖춘 참된 기독교 리더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CA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2학년 전원이 유펜, 코넬, USC, 휴튼, 뉴욕대 등 미국 내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뤘다.

NCA는 WASC 정식 인준 학교이며 IB(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와 안전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특히 신앙과 열정을 갖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로 알려져 있다.

▷학교 주소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웹사이트 www.e-nca.org

▷문의 213-487-5437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제46회 학위 수여식이 거행됐다.

###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학위 수여식

#### 12명 졸업생 배출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총장 Dr. Joshep Lomusio)의 제46회 학위 수여식이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에 가든그로브에 소재한 First

Baptist Church에서 150여 명의 학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명예 신학박사 2명, 목회학 박사 5명, 목회학 석사 5명 등 총 12명이 각각 학위

를 취득하였다.

한편, 본교에서는 졸업식을 앞두고 전 교수진들과 졸업생들이 4박5일 일정의 크루즈 졸업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다.

선상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6차례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신사도운동의 실체와 비평, 기타 현대 신학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 제19차 1일 신약통독



이번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Memorial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2015년 5월 25일(월) 오전8시(시간엄수)

### 장 소

헐리웃효순장로교회 (담임 김동원목사)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909)983-0994

###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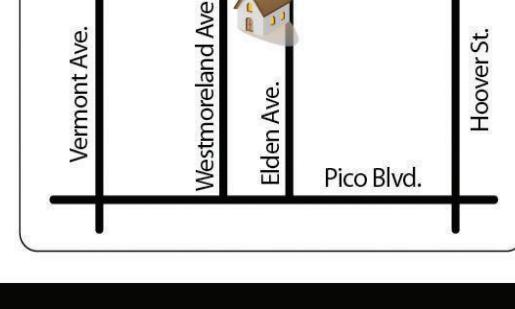


김동원 목사

### 교회 찾아오시는 길

(213)268-3589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올림픽경찰서 동쪽(11가와 엘덴이 만나는 곳)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후원: 갓스윌연합교회 기독일보 미주복음방송 헐리웃효순장로교회



KPCA 제40회 총회가 멕시코 칸쿤에서 성대히 열렸다. ©주님세운교회



WKPC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제39회 총회를 개최했다.

##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총회

KPCA 총회 개최, 총회장에 김종훈 목사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0회 총회가 멕시코 칸쿤에서 2015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열렸다. 미국, 캐나다, 중남미, 유럽, 호주, 일본, 뉴질랜드, 중동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21개 노회 462개 교회의 지도자 500여 명이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총회”라는 주제 아래 한 자리에 모였다.

12일 임원 선거에서는 총회장에

김종훈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목사 부총회장에 유영기 목사(나성북부교회), 장로 부총회장에 박형주 장로(나성영락교회)가 당선됐다.

13일에는 오전 특강 시간도 마련됐다.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터키 난민 선교의 시기적 중요성과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 운동 등에 관해 1시간 가까이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11월 이 교단에 속한 대다수 회원들

이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미주동부노회, 서부노회로 각각

가입했다. WKPC에 속해 있던 국제개혁대학교도 합동총회의 해외 인

준신학교가 되며 사실상 이 두 교

단은 조직상 일체를 이뤄가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전 부총회장인

국남주 목사(뉴저지새생명교회)가

총회장에, 이규보 목사(상록교회)

가 목사 부총회장, 황경재 장로(나

성열린문교회)가 장로 부총회장에

취임했다. 이번 총회에는 179명의

총대가 참석해 교단의 회무를 처리

했으며 특히 수요일 저녁에는 “세

계 선교의 밤” 행사를 통해 교단의

선교적 비전을 새롭게 했다.

이 교단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로부터 2013년 5월 분리됐으며 2014년 5월 나성열린문교회

에서 교단 이름을 WKPC로 변경해

총회를 열었다. 이어 2014년 10월과

11월 김준형 기자



합동해외총회가 영생장로교회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 아래 총회를 열고 교단의 부흥을 외치고 있다.

## 합동해외총회장에 김혜성 목사 당선

제37회 총회 영생장로교회에서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가 제37회 총회를 19일 영생장로교회에서 열고 신임 총회장에 김혜성 목사를 뽑았다.

이 교단은 윤성원 목사가 총회장으로 섭기다 지난 2월 사퇴하면서 정완기 부총회장이 총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또 몇몇 노회가 해산되거나 교단을 탈퇴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도 미주에서는 남가주노회와 미주태평양노회만이 참석해 그 규모

가 상당히 줄었다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1979년 이 교단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미주대회의 초대 대회장을 맡았던 김혜성 목사가 다시 총회장에 당선된 만큼 이날 모인 회원들은 교단의 부흥과 갠신을 다짐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박창식 부총회장도 “모든 갈등은 죽지 않아서 발생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워지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준형 기자



해외합동총회가 제37회 총회 중 열린 핸더슨 크리스챤 대학 학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연 제공

## 해외합동 제37회 총회장 피종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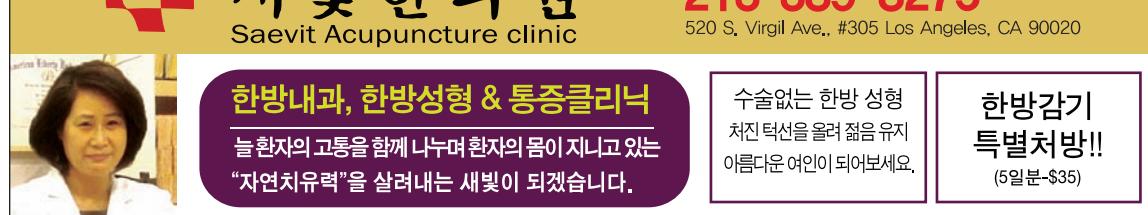
한미 동성애 입법 저지 위해 공동 노력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 제37회 총회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위치한 핸더슨 크리스챤 대학교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2~14일 개최돼 총회장에 피종진 목사를 선출하고, 한국과 미국의 동성애 입법화 저지를 위해 한미 연합기관 공동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4개 대회, 36개 노회의 총대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4시에 개회된 총회는 증경총회장 김동욱 목사(필라노회)의 사회로 윤교진 장로(미주동부노회) 기도, 김진철 목사(해외노회) 성경봉독 후, 증경총회장 박요한 목사(서북노회)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전3:21)”는 제목으로 은혜롭게 설교하였다.

이어 최낙신 목사(미기총 차기 대표회장), 전승현 회장(샬럿한인회), 나성균 목사(노스캐롤라이나 한인 목사회 회장),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근일 기자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차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이석철 교수의 신앙칼럼

## 5.21 원리



이석철 교수  
대전침례신학대학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부부보다 자녀와 부모를 더 중시해 왔다. 본국의 가정의 달 5월은 주로 어린 이날과 어버이날이 '장악'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부부의 날'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부의 날은 1995년에 권재도 목사가 시작한 '부부 주일'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부부의 날 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 운동의 결과로 2007년에 부부의 날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제는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가 발족되어 UN을 통해 부부의 날을 세계화하려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한 것은 가정의 달인 오(5)월에 둘(2)이 하나(1)가 되자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부부의 날 노래도 "둘이 하나 되어"이다. 실제로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행복한 관계를 이뤄야 한다. 성경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관계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

예배소서 5장 21절은 부부관계를 위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는 말씀이다. 재미있게도 이 말씀의 장과 절은 부부의 날과 같은 숫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을 '부부관계를 위한 5.21 원리'라고 이름을 붙여봤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원리는 특히 부부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권면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5.21 원리는 상호 복종의 원리 또는 상호 사랑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실제 부부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우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부의 날을 제정한 중요한 취지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다. 부부관계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다. 이 파트너십은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손잡고 걸어가는 관계다.

마치 두 사람이 한 다리를 같이 묶은 채 달리는 2인 3각 경기와 같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존엄한 인

격체다. 그래서 동등하다. 누가 먼저 창조되었는가는 우월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먼저 지음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창조된 자를 이끌어야 할 책임성의 근거다. '원재료'를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남자의 재료는 흙이지만 여자는 뼈로 지어졌으니 말이다. 그리고 머리뼈나 발뼈가 아니라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대등한 동반자로서 창조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자들은 여자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남녀는 서로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에게 같이 주어진 명령이었다.

또한 5.21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독특한 역할과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역할이나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다. 똑같지 않은 사람들 이 똑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업을 포함한 모든 파트너십 관계에서 사람들이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다. 서로 다른 역할이 필요하기에 동업을 하는 것이다. 참된 하나 됨이란 서로 다르고 독자적인 개인들이 상호의 존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성경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뜻하는 것이다.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의미이다.

결코 아내의 열등함을 말하는 것并不是 아니다. 2인 3각에서도 한 사람이 리드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상대방의 리드에 잘 맞춰가며 달려야 좋은 경

주를 할 수 있다.

서로의 특성과 필요를 이해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남자와 여자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부부로 살 아본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아들과 딸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후천적으로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달라지는 면도 있지만, 오늘 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원래 다르다는 사실이다.

상호 복종과 상호 사랑의 원리인

5.21 원리의 실천에는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잘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는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여자는 보호와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 아닐까.

끝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정서적 친밀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여타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 사실 육체적인 친밀감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서적 친밀감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과 방편이다.

인간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정서적 욕구가 강하다. 이것을 적절히 충족시켜서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키워나가야 할 사랑이다. 행복한 크리스천 부부의 관계는 각자가 성도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니다. 그 이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깊고 친밀한 정신적 유대감을 충만히 나누어 만족하게 살아가는 관계이다.

실로 부부관계에서 누려야 할 참된 행복감이란 정서적으로 일치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런 친밀감이 없이 냉담한 상태에서 그저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허물어져 간다. 지금부터 20년 전 어린이날,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라는 한 어린이의 TV 인터뷰가 방송됐다. 그때 충격을 받은 권재도 목사가 부부 주일을 처음 도입했고 오늘날의 부부의 날이 있게 된 것이다.

부부의 날,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려고 다짐하는 날이다. 그 다짐 속에 부부 행복의 5.21 원리, 예배소서 5장 21절을 기억하자.



엘에이 십자가 사역원이 개원 후 첫 '십자가 짐' 체험 시간을 마련했다.

## "십자가 체험 통한 사명 회복"

엘에이 십자가 사역원 개원, 제1회 십자가의 길

엘에이 지역 목회자들에게 '십자가 짐'의 체험을 통해 쉽지 않은 이민목회 현실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 주고자 '엘에이 십자가 사역원'이 개원하고, '제1회 십자가의 길' 행사 를 은혜롭게 마련했다.

이 십자가 사역원은 이미 본국의 새창원은혜교회(기도원: 담임 피은혜 목사)에서 매년 진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으로, 엘에이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개원하게 됐다.

사역원은 이곳 엘에이에서 약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팜데일 지역 청운교회 비전하우스 자리에 위치해 있다.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 처소 마련과 주님이 걸어가신 14개의 '십자가의 길'은 새창원은혜교회에서 직접 참가하여 마련해 줬고, 참가 목회자들의 체류 비용 일체는 청운교회 측에서 감당했다.

따라서 참가 목회자들은 온전히 '십자가 짐' 체험을 통한 회복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됐다. 이 행사에 참가한 백동흠 목사(그라나다힐한인교회 담임)의 실제 체험의 간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 제1회 미주 십자가의 길

얼마 전 '십자가의 길(비아 돌로로사)' 행사에 다녀왔다. 5월 4일부터 3박 4일 동안의 기간이었다. 한

국 경남 창원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미주 지역에서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행사에 참여해 '십자가 짐'의 체험을 통해 엄청난 위로와 치유

문의는 담임 이명수 목사(청운교회)  
전화: 213-675-8291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장 :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50**

VBS CD (Copy & Print) \$1 (Min. 50 sets)



30장 \$50

Poster (11 inch x17 inch) \$10(5장) \$30(20장) +\$20(디자인)

**\$75**

VBS BANNER 3 ft x 10 ft \$75



AQIBAH VBS 홍보 배너 2set +CD50장 +포스터30장

2set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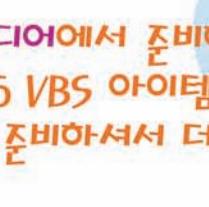
**\$60**

패키지 상품 AQIBAH VBS 홍보 배너 2set +CD50장 +포스터30장

2set \$135

**\$250**

VBS T-SHIRT



Bear illustration

어린이 \$12.00 (일반사이즈 기준)  
어린이 \$4.20

**2015 VBS 아이템... 미리 준비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VBS 어린이 선물용품 coming soon**

junimmedia@gmail.com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 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Call : 323.265.0244 junimmedia.com

개척 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할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은

누가복음 10:17-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누가복음 10:17-24

17 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하더이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너희에게 말씀을 맛보게 하시려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이 후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성과로 인해 기뻐하시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두 번째 제자들을 더 많이 보내십니다. 첫 번째는 12명이고, 두 번째는 70명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내보내실 때는 그 영적인 성과로 인해 기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2차 전도여행을 가는 70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시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 2, 2차 전도여행: 70인 제자들

70명이 나가서 2명씩 35팀이 되었습니다. 2명씩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2라는 숫자를 증인을 세울 때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야하기에 증인이 성립되는 숫자인 2명씩 보내신 것입니다.

70명이 성령과 진리로 완전 무장하고 예수님께서 내보내셔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물리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0명이 전도훈련 나가 전쟁하고 승리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뻐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하며 주님의 이름은 작게 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더욱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그들에게 항복했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사탄과 전쟁하러 갈 때에 부어주신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갈 때에, 즉, 그들이 성령 받는 순간에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등록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호적부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노릇을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다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부분만큼 상속권을 부여 받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70명 제자들에게 귀신을 억제하고 병을 고치고 또 악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자들이 귀신들과 영적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21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길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도 고쳤는데 왜 나는 천국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할 때에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개인의 명분과 실속 쟁기는 일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나 지금이나 주무시지 않고 심판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돋벌이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3. 임마누엘의 실증: 믿음의 기도

성경의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웃으셨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본문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은사와 영적인 힘을 더하여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겨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그 상황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악령에게 승리할 때마다 지옥은 허물어지고 천국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옥을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면서 그 지옥이 천국으로

로 바꾸어지도록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은사와 영적인 힘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악령과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악령을 물어내고, 그 사람을 빼앗아 교회로 인도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주고, 천국을 소망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빌립처럼 “와보라” 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시키면, 그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됩니다. 이는 우리를 통하여 악령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이끌려가던 인생을 빼앗아 천국으로 돌아키게 하는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영적으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아 헌신하는 목적이 되어야합니다. 우리가 악령과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싸우시고 말씀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항상 깊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더욱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전신감주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악령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는 목적을 복음 전도에 힘씁시다! 우리가 함께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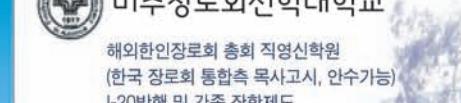
##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신문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미국 신문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7면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지구촌 어디서든 [YOUTUBE](http://YOU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킬 가능합니다.

提 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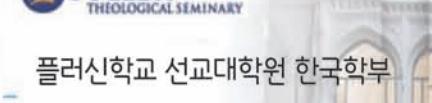
# 2015 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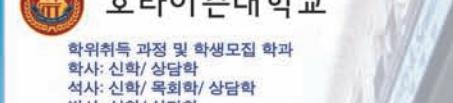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총회 목사고시, 인수기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http://www.ptsa.edu)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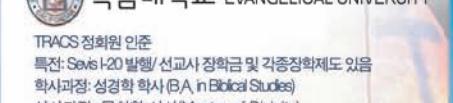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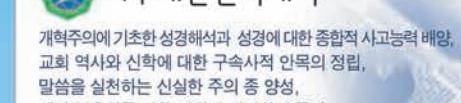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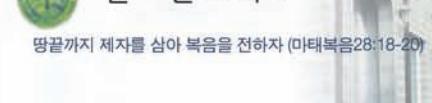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http://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mailto: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인식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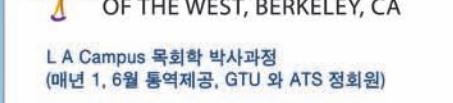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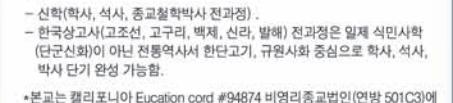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赖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톤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mailto: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http://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화)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과정).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과정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기, 규원사화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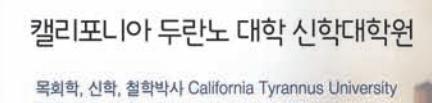
\*본사는 캘리포니아 E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넘겨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http://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imjeongeu@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http://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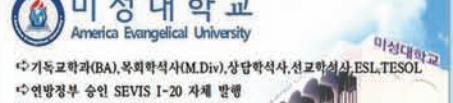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갈

사명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mailto: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http://www.chongshinusa.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인수 및 미주 한글에서 사업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풍준 박사, 이사장: 조종관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i.us](http://aeui.us) / [aeumaster@gmail.com](mailto:aeumaster@gmail.com)





##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알카리성

산성	중성	셀라케어				
3.5	6.0	7.0	8.5	9.0	9.5	10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카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 셀라케어 효능사례

###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 자폐 · 무감각 증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간질, 발작 증세, 자폐증에 무감각증으로 19년 동안 고생중에 셀라케어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음
관절염 · 변비 ·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통증이 가라앉고 변비도 없어졌으며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중풍 · 마비 · 당뇨	15년동안의 당뇨합병증으로 고생 중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후 얼굴의 마비가 7 개월만에 많이 호전됨.
일본 원자력 피해	선천성 노하우체호르몬 분비가 안 되어 하반신 마비, 간질, 정신병약, 비정상 성장에서 셀라케어 2개월 복용후 검고 말함. 토요다 유이토 2세(일본 짜바) 090-9934-2333
자폐증	7세 남자아이가 자폐증으로 셀라케어 복용후 호전됨.
혈소판	3살 반부터 혈소판 수치가 50~29 까지 떨어졌다. 셀라케어 복용 후 한달 반만에 정상수치 (100~400)로 돌아옴. 김예은(7세, 미국) 213-798-8767
방광암 · 임파선암	방광암 말기에서 임파선을 타고 전신전이, 항암치료, 방사선토로 한계방광적출, 1개월시한셀라케어 1년 복용, 임세포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진단. 나카지마상(일본 군마현 다키사카) 080-3556-1951
간에 생긴 종양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없어짐. 참고로 고바야시 어머니가 암사임. 고바야시(32세, 일본 요코하마)
녹내장	오래된 녹내장으로 고생중에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안과에서 정상으로 진단됨. 빅토리아(59세, 일본 등동) 8180-1330-2069
췌장	췌장에 물혹. 셀라케어 3달 반 복용후 없어졌다고 의사가 진단함. 58세 목사 사모님(미국 TX) 972-620-2900
식도염	심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거의 호전됨. 부기, 위장, 변비, 여드름, 피부 모두 효과 봄. 이은선(미국 MI) 616-822-4627
간질	16년동안 매일 여려차례의 간질로 인해 전혀 사회에 대한 경험을 못하다가 셀라케어 복용후 건강이 호전되어 결혼도 했. Eunice Park(미국) 213-604-1992
아토피 · 건선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후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자고 기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Esther Yang(10세, 미국) 213-215-6991
파킨슨	셀라케어를 파킨슨약(Sinemet)과 병행해서 복용하며 떨리는 증세와 몸의 허약함이 반전되었고 50% 좋 아져 18시간 비행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옴. John Kim(미국)
심장	의사로부터 심장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는분의 권유로 셀라케어 2달 복용후 혈액이 맑아졌고 1년 복용후 수술을 안하게 됨. Mr. Yoon(58세, 미국)
백혈병	직업 간호사로 지내다가 갑자기 백혈병 검진을 받게 되고 셀라케어를 1달 반 복용후 의사로부터 백혈구 정상으로 진단받음. Petra(미국) 708-296-2085
반신불수 · 육창	10년이 넘도록 혼자서 대소변이 불가능했으나, 셀라케어 3일 복용후 아들도 알아보고 복용 6달 후부터 몰라보게 좋아져 조금씩 걸음. 박경숙(82세, 미국)
전립선암 · 부정맥	소변 힘들고 방에도 7번씩 소변을 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하였음. 셀라케어 2달 복용후 많이 호전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가 계속 좋게 나옴. Tomas Park (92세, 미국)
심한알레지 · 하지정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세우는 고통 중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호전, 심한 심장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호전됨. 정수지(61세, 미국) 323-774-1138
비만 · 우울증 · 애뇨증	어려서부터 심한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LB였으나 셀라케어 2달 복용후 살이 빠지기 시작. 현재는 130LB로 유지됨. Sam Yang(11세, 미국)
자가 면역 질환	회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상실, 지속적인 증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차병으로 셀라케어 3일 복용후 혈액수치가 정상으로 나오고 1달 복용후 정상 판정받음. Mrs. Kwak(미국)
방광암 · 전립선	방광암 진단을 받고 셀라케어 6개월 복용후 깨끗해졌다고 함. 토요다 이찌로(일본 후지오카) 0903-146-0007
약물중독 · 우울증	햇빛재단(미국) 오네시모 선교센터(미국)
강아지 백혈병 · 피부병	강아지가 백혈병과 피부병에 고생 하던중 셀라케어 단 2회 먹인후 치료가 필요없게 됨. 김인숙 213-760-5699

##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 가능합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 건강과 성경 이야기 53

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다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안타까운일이 발생됩니다. 11장 1절로 1. 솔로몬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사돈과 헛 여인이라 2. 여호와께서 일찌기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쟁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9절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일찌기 두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 이 일에 대하여 명사 다른 신을 쓰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 이러한 일에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이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중요한 결정에서 노인들의 조언을 따랐으면 좋았을텐데, 마음이 높아진 결정을 하여서 좋지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일로 인하여 몇백년간 남북이 서로 싸우게되는 비극과 국력의 낭비로 인하여 모두 망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점을 본다든지, 신년운수를 본다든지로 시작하여 사람이 만든 것에 절을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본인과 자손들을 위하여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소화기관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잠을 수 있는지를 보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장기인 장기로 움직이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땅기운이 많이 활동되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장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많은 질병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LA별문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흄쇼핑	714.496.7887	시애틀	206.331.6655
시온약국	213.344.9730	LA별문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씨애틀(건강마을)	206,229,5466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가주건강증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가디나	714.351.0440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카고 일바니약국	847,699,1511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카우동가	909.987.9500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818.642.8223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텍사스 (로열백화점)	972,620,2900
LA 다운타운	213.798.3333	오렌지카운티 (H마트 내)	714.228.9212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 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636.2588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캐나다	604,872,1669
LA 6가 베질약국	213.384.120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730.2707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 사랑방	213.351.9552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690.0120	토랜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LA 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70.7979	뉴욕, 뉴저지	201,983,8333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 “장로교 정체성 확인하고 연합과 일치 추구하자”

‘제7회 장로교의 날’ 7월 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서 열린다



장로교의 날 발대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이하 한장총)가 19일 오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7회 장로교의 날’ 발대식을 개최했다.

홍호수 목사(실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발대식에선 이재형 목사(기획본부장)가 올해 ‘장로교의 날’ 계획안을 보고했고, 이어 김인기 목사(비전70부부단장)가 대회 성공을 위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제7회 장로교의 날’ 행사는 ‘광복 70주년 -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한국장로교회’를 주제로 오는 7월 3일부터 10일까지 학술심포지엄과 기도회 및 기념대회 등으로 치러 예정이다.

우선 학술심포지엄은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장로교 신학자 및 목회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기념대회는 10일 오후 3시 역시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참석 인원은 약 1천5백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대회장은 황수원 목사(한장총 대표회장)가, 위원장은 백남선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맡는다. 서기는 이재형 목사(개혁 국제 총무), 회계는 조성제 장로(예장 합동)다. 그리고 한장총 회원교단 총회장 23명과 증경대표회장 21명이 각각 공동대회장 및 고문으로 섭진다.

또 홍호수 목사(예장 대신 총무)를 위원장으로, 이홍정(예장 통합 사무총장)·김창수(예장 합동 총무)·이경우(예장 백석 총무) 목사를 공동실행위원장으로 하는 실행위원회도 구성됐다. 위원은 한장총 회원교

단 총무 및 사무총장 19명이다.

한장총은 이번 대회에 대해 “장로교 전통예배를 통해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연합과 일치를 추구할 것”이라며 “또 ‘한 교단 다제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하나님 나라 통일운동’을 확산하며,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장총 황수원 대표회장도 “우리가 일치하고 연합하면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광복 70주년에 열리는 이번 ‘장로교의 날’이 보다 성숙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 무엇보다 한국교회 앞에 장로교가 연합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전했다.

한편 한장총은 발대식에 앞서 제32-1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김진영 기자

## 기하성(여의도) 정기총회 성료

이영훈 총회장 재추대, 순수 복음과 성령충만 강조



기하성 여의도 측 제64차 정기총회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가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제64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영훈 현 총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을 차기 총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이영훈 신임 총회장은 참석한 총회대의원(총대) 630여 명의 박수를 통해 재추대됐다. 또 기하성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은 이번 제64차 정기총회를 교단 통합 총회로 열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이 신임 총회장은 “이번 총회는 한국교회의 오순절 성령운동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오직 성령충만의 능력으로 재무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번 총회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권 아래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하고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신임 총회장의 재추대와 함께 기하성 여의도 측은 임원선출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제1·2·3부 총회장에는 각각 이태근(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강양선(일산순복음 영산교회), 윤종남(순복음금정교회) 목사가 추대됐다.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최명우(순복음강남교회) 목사와 김인식(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도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현 총무인 염진용(제일좋은교회) 목사가 다시 총무로 선출됐고, 서기 이일성(순복음삼마교회)·재무 박형준(순복음평택중앙교회) 목사·회계 박경표(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가 추대됐다. 하석수 기자

## 통합, 6월 7일부터 “평화통일을 위한 70일 기도운동”

## 예하성 총회장에 진등용 목사 선출



변창배 기획국장(좌)과 이홍정 사무총장(우)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이 1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 화해와 친목, 평화통일을 위한 70일 기도운동”을 6월 7일~ 8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70주년 기념 주일인 8월 9일에는 총회가 배부하는 ‘광복 70주년 감사예배(안)’을 사용해 예배를 드리고,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은 ‘광복 70

주년 기념 특별새벽기도회 자료집’을 사용해 민족의 친목과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이 진행된다. 정영택 총회장은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우리 민족은 민족상잔의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60년

이 넘는 세월 동안 화해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총회는 이러한 분단 현실을 넘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 총회장은 “이를 위해 총회는 정전협정 체결(1953년) 60주년이었던 2013년부터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2015년)까지 3년에 걸쳐 ‘민족의 친목과 화해 및 평화통일을 위한 3년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족의 친목과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 과정” 중 3년차인 올해 발간하는 기도집에는 6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70일간의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며 “총회 산하 모든 교회는 이 70일 동안 기도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하석수 기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예하성) 제64차 정기총회가 18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딤전 6:12)라는 주제로 경기도 안양시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열렸다. 이 총회에는 1,5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했다.

임원선거에서는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에 진등용 목사, 부총회장에 조원익 목사, 총무에 김병묵 목사, 서기에 이인규 목사, 재무에 김종연 목사, 회계에 김영준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신임 총회장 진등용 목사는 당선인사말을 통해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총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맡겨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목회 현장을 만들어 가며,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이단·사이비를 배격하고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밝혔다.

참석한 총대들은 한국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불감증을 타파해 나갈 것과, 올바른 복음 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 창조 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자 축제를 저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업무 및 사업보고, 목사고시(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 합격자 29명에 대한 인준에 이어 각 국·위원회별 사업보고 및 업무계획들을 처리했다. 이대웅 기자



진동용 신임총회장

에 대한 불감증을 타파해 나갈 것과, 올바른 복음 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 창조 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자 축제를 저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업무 및 사업보고, 목사고시(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 합격자 29명에 대한 인준에 이어 각 국·위원회별 사업보고 및 업무계획들을 처리했다. 이대웅 기자

##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5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입학 상담: (213)400-3588,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2015년 국제선교지도자 살롯포럼'이 14일-15일까지 고든코웰신학대학원 살롯 캠퍼스에서 열렸다.

## 김넷, 미래지향적 선교사역 논의

14-15일 살롯에서 '2015 국제선교지도자 살롯포럼' 열려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KIMNET, 상임대표 최일식 목사)과 고든코웰신학대학원 살롯 캠퍼스(총장 팀 레니악 박사)에서 공동주최하고, SIM USA(대표 브루스 존슨), United World Missions(대표 존 버나드)에서 함께 동역하는 '2015년 국제선교지도자 살롯포럼'이 14일부터 15일까지 고든코웰신학대학원 살롯 캠퍼스에서 열렸다.

첫째 날인 14일 오후 1시, 강승삼 목사(전 KWMA 의장)의 "하늘나라 비전과 파트너십"이란 개회설교로 시작된 포럼은, 이원상 목사(시드선교회 대표)의 '지도력과 협력', 백운영 말레이시아 선교사(GP 인터네셔널 대표)와 브루스 존슨의 '선교 단체와 교회파송의 협력과 동역'에 대한 강의로 파트너십의 실제와 유의점들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1. Training Laity for Ministries 2. Cooperation: Church & Mission 3. Cross-Cultural Team Building 4. Cooperation in Missionary Training 5. Mission of Diaspora & North Korea의 다섯 가지 주제로 워크샵이 진행됐고, 저녁시간에는 나성균 목사(살롯장로교회)의 사회로 유니버시티파크침례교회 찬양팀의 은혜롭고 영감 넘치는 찬양

에 이어 클라우드 알렉산더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둘째 날 포럼에서는 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 장영일 총장이 나와 '선교사들의 계속 교육'이란 주제 강의를 이어갔고, 이어 UBF가 처음 한국에 세워질 때부터 혼신하다 은퇴한 사라 베리 선교사의 '나의 삶과 성경'이란 간증, 현 UBF 국제대표로 사역 중인 김아브라함 박사의 '평신도 동원과 훈련'에 대한 강의, 김남수 목사(뉴욕프라미스교회)의 '무관심에 의해 무시된 차세대'란 주제로 4/14 Window Movement에 대한 소개와 사역에 대하여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에게 많은 유익함을 끼쳤다.

이현석 사무총장은 "이번 포럼은 미래지향적인 선교사역에 대하여 각 분야에서 현재 사역 중인 선교사들과 선교단체장을 그리고 평신도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는 국제적인 첫 모임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동시에 다민족적 문화를 뛰어넘는 팀을 만들어 훈련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적, 국제적으로 협력하며 동역자로서 국제선교를 하게 하는 실질적인 면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앤더슨 기자

## 다일 최일도 목사 애틀랜타 방문

제 7기 미주 다일공동체 이사진 위촉, 신구 조화 이루는 든든한 구성



미주다일공동체를 방문한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12일 미주다일공동체(원장 박종원 목사)를 방문해 네팔 선교보고와 함께 지진 피해상황과 구호활동에 대해 나눴다.

그는 "지금 신두팔족 메인도로에 산사태가 나서 카트만두 간에 이동은 불가능한 상태다. 피해가 심각한 신두발족 지역을 중심으로 수차례 걸쳐 식량, 물, 의약품 등을 공급했으며, 구호 트럭의 접근이 힘든 산간지방에는 인편으로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서너 시간을 걸어서 오는 네팔인들 을 위해 의료팀들은 매일 녹초가 될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생생한 현지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지진으로 이웃들이 사망하고 자신의 집도 무너진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구호품을 전달하려 온 우리들에게 꽃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걸어줬다. 또한 자신들이 먹을 것도 없으면서 오이 밭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오이를 따다 줘, 봉사자들은 가슴이 뜯여 한참동안 먹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었다"고 현지인들의 모습을 설명하기도 했다.

지진 피해가 막심한 네팔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당장 집이 사라진 가족들이 작은 공간에서 30명 넘게 생활하고 있다면서, '텐트'가 가장 절실한 구호물품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무너

진 마을과 주택복구를 위한 중, 장비와 수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일공동체는 네팔 현지에 한국인 6명, 현지인 19명의 스템이 활동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한국에서 온 긴급구호팀과 함께 2주 동안 신두팔족 재난현장에서 밥퍼, 의료캠프, 방역활동 등의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지진 발생 2주 만에 재난을 당한 5명의 네팔 다일공동체 스템들의 고향인 고르카를 찾아 가족들을 살피고 그 지역에 살과 텐트를 전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최일도 목사는 "재난당한 집과 가족을 두고 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온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나의 어려움보다 다른 이의 어려움을 먼저 돌보는 이들이 있기에 네팔은 반드시 회복될 줄 믿는다"며 소망을 잊지 말자고 격려했고, 이날 모인 미주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네팔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모금에 동참했다.

미주다일공동체에서는 지진 피해를 당한 네팔을 위해 미 전역에서 구호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810을 모금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13일(수)에는 제7기 미주 다일공동체 이사진을 위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윤수영 기자

# 교회 및 선교회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비정종교회 / 토사벽 171와 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동부 새벽 LASR미안학교(기)와 라파يت 코너-320 S. La Fayette Park

김기섭 담임목사

연재선 담임목사

## LA 사랑의교회

평생도를 넓혀라.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정치를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버몬트중학교 (1기)와 버몬트 코너-152 N.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213)386-2233 / www.Lasarang.com

김기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박성도 담임목사

## LA 선교교회

내 지성을 넓혀라, 믿음을 성장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소망중에 기뻐하자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435-0380, (213)435-0094 / www.missionla.org

박성도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구역모임 오후 7:30  
오후 천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현현섭 담임목사

##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전도하는/헌신하는 산양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92-0788 / kuinholly@hanmail.net

현현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구역모임 오후 7:30  
오후 천양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

진유철 담임목사

##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증명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서건오 담임목사

##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기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323)939-7323 / www.lakwpc.org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EM예배 오후 1:00  
한어침례부 오후 1:30

박성성 담임목사

##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81 W.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박성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침례부 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후 6:30

정우성 담임목사

##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213) 388-7101

김광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김요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주일오후 2:00

김요섭 담임목사

##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정우성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주일오전 11:00  
천양예배 오후 1:45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714) 319-2234

박성성 담임목사

일예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주일예배: 오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신현호 담임목사

##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310) 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교도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조인수 담임목사

##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389-0691 / F.(213) 389-0694

김세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정장수 담임목사

##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 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310) 645-3698 / F.(310) 645-3060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비 및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미디칼, 임산부 메디칼

##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김세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 LA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수요찬성령진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세벽예배(화-금) 오후 5:30  
(토) 오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 갓스월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후 11:45  
4부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세벽예배(화-금) 5:30(토) 오후 6:00

##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교회

1717 S.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후 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시 (자성전)  
오전 11시 (분성전)  
본성전: 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자성전: 667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 선과 악인 모여에게 빛을 비우는 교회(마5: 45)  
1. 민족을 넘어서 2. 성장을 넘어서 3. 국가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주일예배(제1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교(화-토) 오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습(수) 오후 07:30  
백재준 담임목사

##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ud7@hotmail.com

##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민족 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전 5:30(화-금)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천양예배 오후 7:45  
김영구 담임목사

##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설립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증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설립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EM) 오후 11:00  
금요증보기도회 오후 7:30  
김준식 담임목사

##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9:30  
3부예배 오후 11:00  
EM 1부예배(EM)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화-일) 오후 6: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 대홍장로교회

명풀까지 내 즐인으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천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종용 담임목사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화-금) 10:00  
Toddler - Youth 10:00  
주일학교 중/고등부 10:00  
주일학교 중/고등부 11:30  
새벽예배 월-토 오후 5:30am  
오후 2:00(점심)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청교도,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토伦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세벽예배 오전 7:00(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EM 1부예배(EM) 오전 9:30  
2부예배(EM) 오후 11:00  
새벽기도회(화-금) 6:00(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이성현 담임목사

##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불하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교시(제주일) 오전 9:45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유초등부주일(주) 오후 11:00  
중고등부주일(주) 오후 11:00  
충고등부주일(주) 오후 11:00  
한글학교(제주일) 오후 10:00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섬기는 교회' (별 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온혜와 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5:00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수) 오후 8:00  
오후 12:00 (분당)

세리토스체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독도영성체 - 저녁 7:45  
13804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밸리체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비전체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호년 담임목사  
세리토스체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독도영성체 - 저녁 7:45  
13804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최혁 담임목사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www.kjdb.co.kr



샘물장로교회 임직예배 임직자들

## 샘물장로교회 임직감사예배

4명 장로(장립) 및 4명 권사 취임, 교회의 든든한 일꾼 세워

샘물장로교회(담임 함종협 목사)가 17

일(주일) 오후 6시 많은 축하객들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4명의 장로(장립)와 4명의 권사(취임)가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졌다.

함종협 목사의 사회 아래 기도(장경 목사), 설교(송기호 목사), 임직서야, 나의 다짐(임직자들), 안수기도, 선포, 축사 및 권면(이재광 목사), 축도(이원복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 예배에서 송기호 목사(성산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NKPW) 전국총회

## NKPW 제 15회 전국모임·전국총회 성료

### 신임회장 최경화 장로, 부회장 양경화 장로 선출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이하 NKPW, 회장 김한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계를 향하여'를 주제로 제15회 전국모임 및 정기총회를 지난 14일(목)부터 16일(토)까지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개최했다.

미주지역 회원 13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염순희 목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계를 향하여", 최희안 목사가 "여성리더십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경험하기" 주제 강연을 펼쳤다. 특별히 일정 마지막 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총회에서는 ▶회장 최경화 장로(대성장로교회 Sunnyvale, CA) ▶부회장 양정아 장로(인디애나폴리스한인교회 Indianapolis, IN) ▶총무 이지숙 목사(아름다운교회 Long Island, NY) ▶서기 안희진 집사(그린스보로제일장로교회 Greensboro, NC) ▶회계 양회란 장로(산라파엘장로교회 San Rafael, CA) 등이 신인 임원진으로 선출됐으며, 양방자 권사, 윤영숙 집사가 재정 감사로 선출됐다.

김한나 직전회장은 "2년 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라는 시편의 말씀을 베풀고 삼으며 회장직을 시작했다. 그동안 성실하신 임원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 동역자 여러분, 또한 여선교회를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저희 교회의 목회자들을 자산으로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인삿말을 전했다.

보내는 예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적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말씀

을 전한 정인수 목사는 "우리의 성성이 훈들리는 이 때에 영적 리더십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영적 리더가 자신과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사람들을 움직여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리더십은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한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한다. 절저하게 성령께 의존한다. 사람의 변화는 영적인 힘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따르는 리더들이 되길 바란다. 리더는 일관성이 있고 변함없이 순종하며 나아간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 목사는 "영적 고독을 즐겨라. 흘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자기 죄를 참회하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영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멘토링을 통한 리더십이 전수되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각양 은사로 혼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리더들이 되시길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진 순서로 박한옥, 이성혜 목사의 집례로 성만찬이 거행되었으며 정인수 목사의 축도로 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윤수영 기자



뉴저지비전교회와 맨하탄인투교회가 10일 주일예배에서 네팔 구호를 위한 비전현금으로 주일 현금 전액을 내어 놓았다. 사진은 뉴저지비전교회 예배 모습.

## 네팔 위해 주일현금 전액을 기부하는 교회

### 뉴저지비전교회-인투교회 주일현금액 모두 비전현금으로

넉넉하지 않은 이민교회 재정 운영에 있어 한 주의 주일예배 현금 전액을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단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별씨 두 번이나 주일예배의 현금 전액을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한 이웃을 위해 내어놓은 교회가 있다.

마크 최 목사가 담당목사로 섭기고 있는 뉴저지비전교회와 맨하탄인투교회는 오는 10일 주일예배 시간에 기존의 현금 시간 대신 '네팔 구호를 위한 비전현금' 순서를 갖고 성도들의 주일예배 현금을 모두 네팔 돋기기에 사용한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의 이민교회들도

### 남침례회, 선교사 기준 변경…방언 인정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이사회(International Mission Board·IMB)가 선교사 기준을 수정해 방언을 하는 이들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약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정책을 바꾼 것이다.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미국 남침례회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국제선교이사회 회장이자 「래디컬」

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브룩힐스

강혜진 기자

##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한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로회 오전 9:30, 11:30  
한국어예배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금) 6:00(토)

앤드류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신학교 오후 7:30 금요침례예배 오후 8:00  
화요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후 6:0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박재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6:00(금)  
한글학교 오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박재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일주일부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민경업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an.org

박재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8: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 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박재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본당  
2부예배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저녁 8:00 본당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하귀암 담임목사

놀워연합감리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038 / usa8291@gmail.com

안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 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종교동부)

늘푸른선교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org  
mcfoffice.email@gmail.com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화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후 5:30  
(토)오후 6:00

로뎀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THYM.COM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9:3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토요 새벽 협회비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6:30 AM (일)  
금요모임 : 7:20 PM (성경 66권 책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세대를 본받고 마음을 새롭게 할려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신학하고 기쁨하고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12)

12432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us@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영어예배(GLMC) 주일 오후 12: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화요일 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후 5:30  
(토)오후 6:00

성경적 목회연합회

"누구든지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권혁빈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9:15 중고등부 예배 오후 9:15  
3부 예배 11:30 한인부 예배 오후 11:30  
4부 오후 2:00 KMC대학원부 예배 오후 2:00

홍성준 담임목사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권혁빈 담임목사

#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www.SuperMirapharm.com](http://www.SuperMirapharm.com)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 미라팜-22

###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로 검색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료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써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자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1.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정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주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몰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2.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재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침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애플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3. (47세 여) – 구아와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려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4.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5.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갑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6.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가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를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7. (84세 여) – 만성수환으로 인사불성에 장애준비하라 의사 권유에 미라팜 먹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사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8. (60대 여) – 의료사고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퀸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뇌사 미라팜”을 검색하면 나옴
9.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10.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11.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가 다시 난다.
12.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13. (50대 여) – 밤새 잠을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받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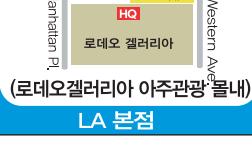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 A. 본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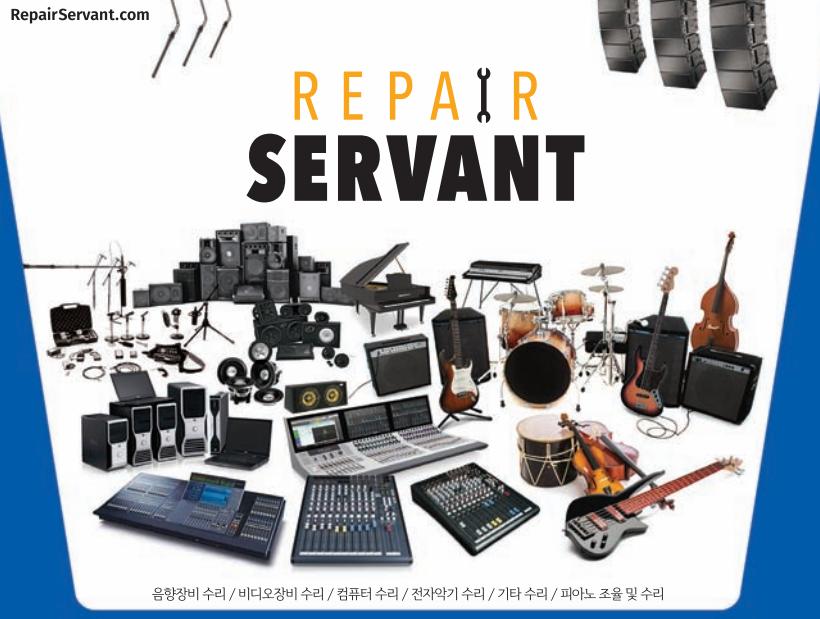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월~금: 10am~7pm, 토:10am~5pm



(Repair Servant)  
**“리페어 서번트—갓스 서번트”**

교회 음향기기에 문제가 생겼나요? 리페어 서번트를 부르세요



## 고쳐드립니다

교회 장비가 고장났습니까?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RepairServant는 미자립교회를 위해 시작했습니다.  
 RepairServant는 기술지원으로 사역을 돋습니다.

The Leader of RepairServant : 마원철 목사

REPAIR SERVANT (909) 292-7474 RepairServant@gmail.com Los Angeles, CA

마목사는 어려서부터 음악과 오디오 기기, 아마추어 햄 무선 관련 전자장비 중 가장 종합적이면서도 까다로운 무전기를 수리는 물론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전자장비에 관심이 많았고 그 만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습득은 훗날 교회의 사운드나 무선 마이크, 비디오 장비들을 수리하며 다루는 미디어목사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

마목사는 한국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 성가대 지휘와 New Life Mission(전가화 목사)에서 음악과 미디어를 담당했다.

1986년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는 미주복음방송 사운드엔지니어와 찬양의 꽃다발, 사랑의 종소리를 담당하며 섬겼다.

골든게이트신학교를 졸업하고 남가주헬로침례교회에서 음악목사, ANC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미디어와 공동체 담당목회를 섬겼다.

그 후 인랜드온누리교회에서 5년간 담임목사로 섬기던 중 2013년 가을, 왼쪽 신장에 적신호가 왔다. 결국, 문제의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 마목사는 수술 후, 회복기간을 거치며 되돌아볼 틈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날의 사역여정을 순간순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전화선을 타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목사님! 큰 일났어요. 앰프에서 소리가 안나요 빨리 도와주세요. 순간 ‘파식’ 웃음이 났다. 어느 목사님이신지 그 분은 애가 타겠지만, 이리저리 불려 다니는 나는 신바람이 났기 때문이다. 잠자고 있던 기기들이 간단한 수리만으로도 제 기

능을 되찾아 ‘쨍쨍’해지는 모습을 보고, 어쩔줄몰라 애타던 목사님께서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고, 그 웃으시는



마원철 목사

악가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 다음이 어려서부터 가까이했던 악기, 오디오기기, 무선 전자장비 등등. 그리고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미자



수리가 의외로 간단한 경우도 있다.

리고 만다. 절룩거리는 액션들을 활동이 뜻한 고음과 저음역으로 몰아 넣고 쓸만한 것들을 모아 자주 사용 할 대역으로 이식한 후 조심스레 조



새것과 다름없이 말끔히 수리된 기타

모습을 보며 나는 보람도 있고 흐뭇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회복 기간 중 지난날을 회상하던 마목사는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에 보탬 되길 고민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하나 묵도해 나갔다. 마목사가 가장 잘 하는 것은 노래였다. 원래 목사가 안 되었다면 성

립교회를 돋기 위해 ‘리페어 서번트’ 사역의 길을 나섰다.

“썩어도 준치라는 속담이 있다. 원래 본 바탕이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 낡고 헐어도 그 본래의 품위를 품고 있게 마련이다. 나는 지금 작고 오래된 교회 안의 거의 썩은 수준의 피아노를 만지고 있는 중이다. 외형도 그렇지만 줄들도 녹이 슬고 줄을 감는 핀도 헐거워 음이 쉽게 풀려버

율하다 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역시 썩어도 준치다. 때로는 나의 삶도 낡고 썩어가겠지만 그 때마다 나의 존재는 썩어가도 그리

스도인임을 상기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 분의 손에 조율되면 영혼의 맑은 소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썩어도 준치인 이 피아노 소리처럼.”

마목사의 ‘리페어 서번트’ 사역은 그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초기와는 달리, 대형 교회에서도 ‘리페어 서번트, 갓스 서번트’ 마원철 목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들의 부름을 받고 마목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마목사를 전문가로 여기고 교회 음향 관련 기기를 수리하는 큰 프로젝트 성 작업을 맞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통해 그 은혜는 어렵고 힘든 작은 미자립교회로 흘러갈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며 힘들고 지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때때로 나는 나의 직업이 틀려며 인가 착각할 때가 있다. 마음씨 좋은 이웃집 백인 아저씨가 수시로 나를 호출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리페어 서번트’ 사역을 눈치챈 그는 집 안의 문고리만 고장나도 날 부른다.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그는 나를 돋는 동역자가 되어 버렸다.”

‘리페어 서번트’ 사역을 시작하면 서 마목사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 벌써 100여곳을 섬겼다. 이 또한 상상하지 못했었던 기쁨이다. 이렇게 저렇게 속내까지 털어놓을 때도 많다. 정말로 위로의 전도자가 되어 ‘나홀로목회’를 하고 있는 셈이다.

“목사님! 어쿠스틱 기타 문제여도 도와주세요!” 요즘들어 기타는 목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끈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만불이 넘는 그랜드피아노보다도 이백불이 끊되는 기타가 더 역할이 클 때가 많다.

마목사에게는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다. 중고상을 지나다가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중고 악기나 부품을 미리 사놓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수리만 잘 하면 한동안 사용 가능한 기기들을 도네이션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작은 아파트가 더 비좁아졌기 때문이다. 온갖 장비와 부품 등으로 집안은 발디딜 틈조차 없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해졌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믿는다. ‘리페어 서번트’ 사역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만이 아시리라.

문의: 마원철 목사 전화 909-292-7474, 이메일 RepairServant@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RepairServant

이영인 기자

irene.lee1124@gmail.com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I-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박사과정 (한 주간, 인тен시브로 강의)  
교육 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석사과정 (100% 온라인)  
온라인 목회학 석사  
신학연구석사  
신학연구상담학석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ies Emphasis)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일반 교육학 박사(Ed.D.)와  
동등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  
교육학과목이수자 혹은  
기독교교육학석사학위 +  
신학과목이수자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모델  
연구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학자격 : M.Div. 학위 소지자



온라인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Online)  
(온라인) 정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본교만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입학자격 :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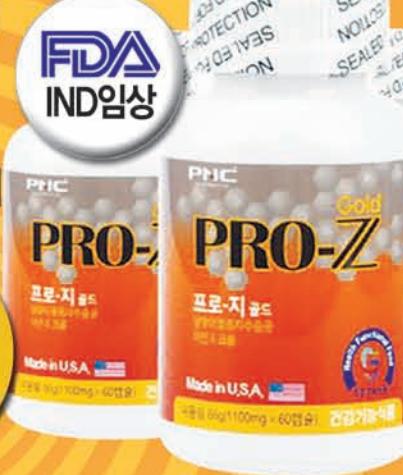
사이트: [www.mbs.edu/ko](http://www.mbs.edu/ko)

연락처: 816-414-3754, [ks@mbs.edu](mailto:ks@mbs.edu)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하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인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신앙자본 기반의 거룩한 창조적 인재양성 교육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5월 월례회에서 발표한 김희자 부총장(총신대학교)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이를 통해 신앙기반의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편집자 주〉

### I. 사회 안의 아이들 교육의 위기:

#### 혼돈의 가장자리

사회 안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최근의 젊은이들의 취업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의 불안감, 정규직에 들어가도 금방 질리고 등의 이유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어떠한가?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소위 "중2병"이라는 인성과 현상과 더불어 청소년들은 매 75초마다 육을 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이 중고등학교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취업과 입시에 유리하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고등학생들은 2010년 이후 이과선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인터넷의 융합환경에서 태어나고, 소셜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교육의 일환인 디지털교과서나 클래스팅에서 수업자료를 보거나, 일대일 멘토링을 통하여 꿈을 키우고, 교사와 사이버 상담을 할 수 있는 세대이다.

우리 아이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긴장하며, 도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합동교단의 12,000개의 교회 중 50%에 해당하는 교회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한다. 주일학교 출석의 어린이와 젊은이의 감소 추세는 한국의 출생률 하락의 3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개신교의 양적 숫자와 사회적 인식도는 계속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위기와 맞물려 있다. 무엇보다도 급격히 감소하는 교회학교 학생 수, 턱 없이 부족한 준비된 교사의 수, 그리고 교사들의 의욕상실과 탈진증세, 교육자료와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의 낙후, 그러나 교회의 무관심과 방치, 그리고 적절한 대안의 부재라는 문제점들이 교회교육의 암울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 II. 사회 안의 아이들 교육의

#### 거시적 환경변화

현재 한국 기독교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구조는 근본적인 기독교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계는 복잡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 속에서 정확한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

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분쟁사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으로는 최첨단의 정보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계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시작된 항구적인 문화전쟁에 아무런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급격한 기독교계의 위축과 감소에 대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교지형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계를 둘러싼 복잡한 환경의 변화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개신교는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체계가 부재하다. 교회쇠퇴의 외부요인으로는 반기독교 문화전쟁, 반기독교 입법부쟁의 무대응으로 인한 기독교 공동체의 붕괴, 내부요인으로는 개교회 중심의 교회이기주의와 공개념의 부재가 결국 주일학교를 더욱 쇠퇴하게 한다. 우리에게 복음과 신학을 전파한 서유럽국가의 많은 교회가 카페, 식당, 여행센터, 또는 경매에 나와 있는 엄중하고도 냉혹한 상황을 보라! 유럽교회가 오랫동안 종교 혼합주의에 대하여 다양성과 관용이 미덕인양 기독교계의 붕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그 결과로 오늘의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III. 사회 안의 아이들 교육의 실천적 방안-거룩한 창조적 인재 양성

#### 1. 거시적 교육환경의 위기 극복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교육 환경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첫째, 한국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복잡도가 높은 한국사회의 다차원적 환경변화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시적 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복합적인 사회문제 방향설정을 할 수 있는 기독교 싱크탱크, R&D 센터 등을 건립하여 기독교 가치의 사회적 아젠더세팅(agenda setting)을 선제적으로 주도해야 한다.셋째, 기독교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교회가 화목과 일치의 공동체적 문제 해결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2008년 1월에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 발생 시 개신교가 대처하던 자세처럼, 여러 교단이 협력하여 한국교회봉사단을 발족하고 100만 명이상이 추운겨울 바람 속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성금을 전달하여 한국사회에 희망의 복음을 전달하며 삶-기독교(bio-Christianity)를 실천할



김희자 부총장  
총신대학교

때 젊은이들은 스스로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 2. 교회, 학교, 가정의 유기적 융합시스템 구축

성경에 기록된 다음세대 교육은 가정(신6:4-9; 11:18-21; 액 6:4)과 교회(엡4:11; 고전 12:28; 롬 12:7)에서 책임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명기 6장, 시편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적으로 부르고 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시78:4)의 말씀은 다음세대의 교육적 책임은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 준다. 성경 시대의 '학교교육'은 확대된 가족 안에서 또는 회당 안에서 이루어졌다. 신명기 6장과 시편 78편이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차별성 있는 기독교학교 존재의 당위성에 대하여 시사해주고 있다. 가정과 교회만으로는 세속적 가치가 만연하고 있는 사회에 맞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옮바르게 양육하지 못할 것이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교육의 삼각축(three axis)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삼각 축 중 '학교 축'이 다른 기반 위에 서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주변의 세속 세계에 반응하는데 균형 잡기 어려울 것이다. 기독교적인 '교육의 삼각 축'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첫째, 교회는 가정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기독교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2013년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기독교의 청년 84.5% 가(중학교 이전 65.1%와 중학교 이후 19.4%)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승된 소위 '가정종교'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여전히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불신 청년들의 전도가 미비함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

회는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부모에게 교사의 역량을 키워주어 세대통합과 소통을 통하여 신앙이 전승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이 해체되었을 때 서구의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였음을 잊지 말고, 가정이 신앙전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가정에게 시간을 배려하고, 가정과 교회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무너져가는 주일학교를 바로 세워 신앙을 전승할 때 주일학교를 통하여 한국교회 부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를 통합할 수 있는 융합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기독교 문화적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오는 복합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 청년실업문제, 저출산문제, 가정해체, 국사교과서의 이념논쟁, 학생조례논쟁, 자사고 존폐논쟁, 미디어의 극단적 세속화를 포함한 사회 모든 부분의 공동체 해체에 따른 가치기반 구조의 붕괴, 종교환경의 격변, 디지털의 일상화, 통일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변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독교 공동체(교회, 가정, 학교)가 강한 세속적 파워를 넘어서는 거룩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필연적인 환경으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신앙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고,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가정의 신앙교육,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교교육 설립이 중요한 보편적인 시대적 표준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신앙교육만이 개인의 성장이나 교회와 사회 및 국가의 성장에 최고의 가치로 대두되며 되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교육의 탁월성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기독교교육이 '기독교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의 조화뿐만 아니라 탁월성에 있어서도 신뢰를 쌓아야 한다. 신앙적 탁월성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을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기독교적 세계관 실천, 통합된 교육과정 전개, 교육행정과 운영,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 학문적인 탁월성은 교회가 어떠한 교육기관들보다도 좋은 교육 환경과 시설, 우수한 혁신된 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졸업생들이 나라와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로 헌신할 때 인정될 것이다.

이제 제자훈련에 힘쓰는 한국교회

는 21세기의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하여 나가는 거룩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독교지성과 영성의 보루가 되어야겠다.

#### 3. 디지털 환경에 맞는 역량기반의 스마트 기독교교육 시스템 체계로 전환

주일날 단 몇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회교육이 과연 디지털환경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교육할 가치가 있는 기독교 빅데이터와 네트워킹을 활용한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기독교 가치를 극대화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독교 시스템 교육을 가동하면, 교회학교의 위치나 사이즈에 관계없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여 시공간을 뛰어넘어 교사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일주일 내내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교육과 초등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클래스팅(classting)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클래스팅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며, 비밀보장 상담 및 알림장 기능이 있어서 학부모에게 까지 문자로 전송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자연적으로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교육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SNS를 활용한 클래스팅은 학부모들, 학생들, 교사들의 소통 공간을 넓혀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모두가 그동안 한국개신교 교회가 직면했던 갈등과 긴장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어, 더욱 단단한 미래 교회의 모형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안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교육하려면, 열과 성을 다하고 지혜를 모아 한국교회가 일치와 화목의 건강한 기독교 교육 환경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의도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육환경의 경건성 회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를 통한 신앙교육이 한국교회와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갈등과 긴장을 넘기기 위해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교육과정 전개, 교육행정과 운영,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 학문적인 탁월성은 교회가 어떠한 교육기관들보다도 좋은 교육 환경과 시설, 우수한 혁신된 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졸업생들이 나라와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로 헌신할 때 인정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사회 안의 우리 아이들을 '신앙자본으로 무장한 거룩한 창조적인 인재'로 양성해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건강한 아이들 교육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하는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다.

##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  
1장

복사기판매!  
렌탈!서비스!

###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ipers.com](http://www.fbmcoip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북새통

책

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교리교육이 우리아이를 살린다

테리 L. 존슨 | 생명의말씀사 | 184쪽

우리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를 가르치며,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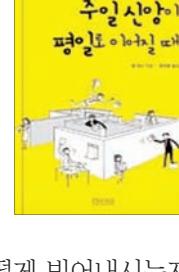


내용이 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소요리문답은 신앙전수의 탁월한 도구가 된다. 이 책은 교리교육에 생소한 부모와 교사들에게 왜 교리교육이 필요한지 동기부여를 해주며 효과적인 교리교육 방법을 알려준다.

### 주일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

톰넬슨 저 · 홍병룡 역 | 아바서원 | 280쪽

주일 신앙이 그대로 월요일의 일로 연결된다면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 책은 성경의 눈으로 우리의 일을 고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내시는지를 탐색하게 서술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처해있는 잘못된 직업관과 일터에 대한 관점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일을 통해 소명을 활성화 하시는 비전을 보게 한다.



###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박현숙 | 규장 | 2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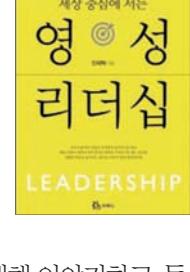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키우면 아이들은 세상과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천하 만민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복을 받는다. 부모로서 스스로 돌아볼 때 혓되고 혓된 삶을 살았다고 느껴진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자녀양육이 너무 힘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세요!”



### 세상 중심에 서는 영성 리더십

진재혁 | 두란노 | 276쪽

영성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책은 첫째 영성 리더십의 이해, 즉 영성 리더십이 무엇이며, 영성 리더십의 카리스마와 파워,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둘째 영성 리더십의 실제, 즉 영성 리더십의 비전과 문화, 리더십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셋째 영성 리더의 영혼, 즉 영성 리더의 영성과 시간 관리, 비판 관리, 기도 등을 다루었다.



## REVIEW

### “우리의 ‘리더’ 성경,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한 72가지 질문”

평신도 부부가 펴낸 「성경 가이드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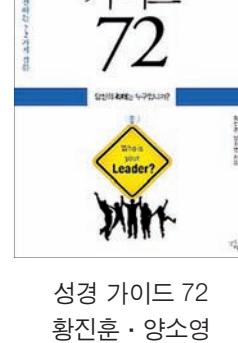
선교단체와 직장에서 리더로 섬기며 성경공부를 인도해 온 평신도 부부가 <성경 가이드 72>를 펴냈다.

저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토대로 72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한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1부 ‘성경을 힘써 알아가자’에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수록 주님과 신뢰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2부 ‘성경과 즐거이 동행하자’에서는 실제 생활 가운데 성경과 동행하는 의미와 방법, 그 복들을, 3부 ‘성경을 바르게 알리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

해야 할 이유들을 각각 정리했다.

저자들은 성경이 자신들의 ‘리더(Leader)’라고 책머리에서 밝힌다. 매일 아침 자신들의 ‘리더’에게 삶의 향방을 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분이시기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통해 리더가 되어 주며 또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리더’로 함께 하려면 따르는 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 전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로서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데” 하는



성경 가이드 72  
황진훈 · 양소영  
샘솟는기쁨 | 376쪽

생각에 출간 여부를 놓고 한때 고민도 했지만, 통상 이론적인 것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것이 바

탕이 된다면 생동감 있고 좀 더 공감이 됐음을 생각하며 용기를 냈단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종교교회 죄이우 목사의 감수를 거쳤다.

저자들의 말처럼, 책에 나오는 72 가지 질문들에는 정말 평신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던 내용들이나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교회에 꼭 다녀야 하나?’, ‘성경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단가?’, ‘전도, 정말 즐거운가?’, ‘일상에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하나?’, ‘성경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나?’, 그리고 ‘왜 양육을 해야 하는가?’ 등이다.

그러면서도 3부 마지막 ‘함께 성

경에서 답을 찾아보자’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구약성경의 율법, 절기, 성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등 성경 자체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은 기독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집필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회한한 옷!!

너무 쇠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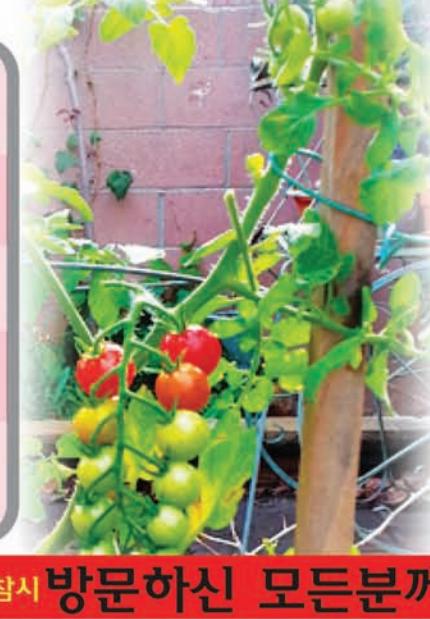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가격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빨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지친 사역자의 아내들에게 힐링과 용기를”

글로리아 C. 퍼먼의 「The Pastor's Wife」

어쩌면 사역자보다 더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의 아내일지도 모른다. 사역자의 아내로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덧 자신의 삶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힘겨워 할 때가 많다. 이 책을 통해 이 땅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신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의 아내가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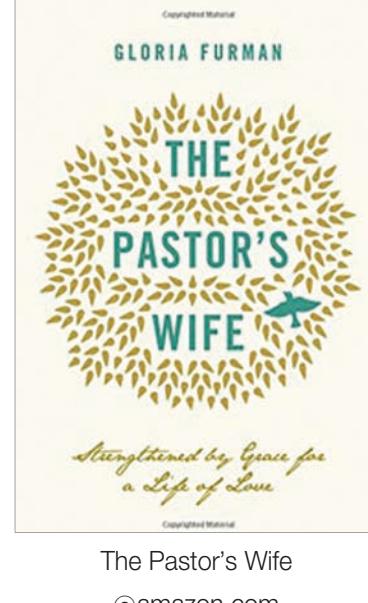
본서의 저자인 글로리아 C. 퍼먼 (Gloria C. Furman)은 한창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의 아내이다. 그녀는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자로서 ‘새내기 사모’들에게 충고하기 위해 책을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도 선교사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여성이다. 그렇기에 그녀가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나누고자 하는, 소중한 기쁨과 행복은 참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녀는 사역자의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 사랑의 대상은 구체적이다. 첫째로 유일한 목자이자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 둘째로 자신의 동역자이자 교회의 리더인 남편을 사랑할 것, 셋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남편과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할 것. 과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이 어떤 힘을 주는 것일까?

사역자의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어항 스트레스’이다. 즉, 어딜 가도 사람들의 눈을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들은 사역자의 아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그녀들에게 한다. “그래도 당신은 목회자의 아내잖아요!” 이러한 끊임없는 노출에 파묻혀 살고 기대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사역자 아내들의 정체성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한다. 사역자의 아내는 자신 내면의 우상화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북상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를 추구한다면,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된다. 사역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 사실 사람의 기대를 어떻게 다 충족시키겠는가? 그것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만약 사역 그 자체에 얹매이게 되면, 그 성공과 실패에 따라 영혼의 상태가 좌우될 것이다.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이다.

퍼먼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해 이러한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를



The Pastor's Wife  
©amazon.com

누리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즉 그분께 기대고 의존한다면,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그분의 기대에 부응케 하는 사역에 필요한 것, 특히 사역자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것이다.

한편 퍼먼은 사역자의 아내들에게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라고 충고하면서, ‘돕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남편을 돋는 자가 되어야 할까?

성경은 사역자의 자질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하지만(특히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 사역자의 아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다. 사역자의 아내란 그저 조용하게 뒤에서 교회 청소를 담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편의 사역에 참여하여, 그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역자의 아내들은, 마치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 같은 존재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치 않아도 들리는 백색 소음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을 불편해하지 말고, 도리어 외인의 쉴 새 없는 평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회임을 기억하며(딤전 3:7), 늘 환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녀는 사역자의 아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러기 위해 그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꽤나 긴 지면을 할애하는데, 그 설명을 읽으면 누구라도 감동을 느낄 것이다(영원성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사랑 가운데 복음을 통해 세워가는 교회에 대한, 그녀의 아름다운 서술을 신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

를 섬기기 위해 각 지체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사역자의 아내도 역시 은사를 받았다. 이때 사역자의 아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은사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을 숙고한다면, 열등감 내지 우월감의 위험(그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위이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말한다. 첫째, 은사는 누구나 받았다. 둘째, 은사는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강점 내지 은사와는 별개로,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되시는 분이다.

그녀는 은혜만이 그리스도, 남편과 가정,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길 고대하면서 책을 마무리 짓는다.

얼마 전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통해, 사역자의 가정이 얼마나 힘겨운지가 교회와 세간에 알려졌다. 이처럼 사역자에게는 돋는 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사역자의 아내에게 도울 힘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교회와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 필자도 목사라 그런지, 이 책을 읽고 나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결국 누구보다 목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목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내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힘겨워하지만 아무 내색 하지 않는, 이 땅의 사역자의 아내들을 응원하며, 그녀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사랑만이 살아갈 능력임을 일깨워 주는 이 책을 추천한다.

### ◆도서정보

제목: The Pastor's Wife: Strengthened by Grace for a Life of Love 저자: 글로리아 C. 퍼먼 (Gloria C. Furman)은 아내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 출산동반자(doula), 블로거이다. 그녀의 가족은 2008년 중동으로 건너가 남편이자 목사인 데이브(Dave)와 함께 두바이 리디미교회(Redeemer Church of Dubai)를 개척하였다. 가격: 11.99 달러(국내 미번역)

진규선 목사  
기독교문서선교회 편집위원



성경을 돌려드립니다  
권일한 | 좋은씨앗 | 2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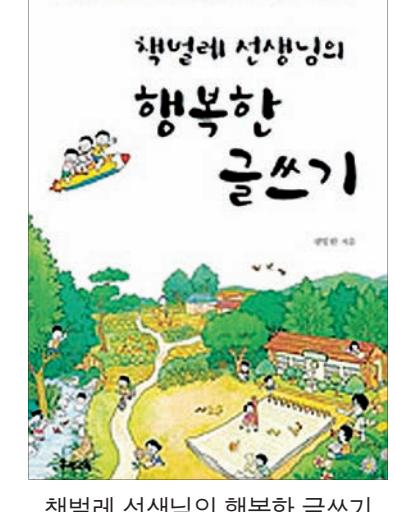
로 ‘책벌레 선생님’이 직접 서신서, 이야기, 시 등 형식별 성경 읽기 방법을 위 9가지 항목을 활용해 예시하고 있다.

저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삶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몇 번 읽었는지를 자랑한다. 그러나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주일과 평일이 모두 하나님으로 주인이신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받으며 하나님으로 주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앞서 펴낸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글쓰기』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느낌과 생각을 글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담았다. 그러나 저자는 ‘방법’은 스스로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지 못하므로 글쓰기를 행복해하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 두번 실패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의 글을 5만 편 이상 읽고 2만 편 이상 답글을 썼던 경험을 토대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글쓰기 노하우를 부모들에게 전해준다. 1분 글쓰기, 일기 쓰기, 시 쓰기, 주제 통합 글쓰기, 조사 보고서 등 갈래별 글쓰기 사례들과 글다듬기까지 다루고 있다.

이대웅 기자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글쓰기  
권일한 | 우리교육 | 300쪽

##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을 질로 치료)을 합니다.

###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전화 1-877-580-2424 색우수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mailto: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책벌레 선생의 추천도서

기독 교사가 말하는 ‘성경, 글쓰기’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로 ‘책벌레 선생님’이 직접 서신서, 이야기, 시 등 형식별 성경 읽기 방법을 위 9가지 항목을 활용해 예시하고 있다.

저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삶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은 사람은 몇 번 읽었는지를 자랑한다. 그러나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주일과 평일이 모두 하나님으로 주인이신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받으며 하나님으로 주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앞서 펴낸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글쓰기』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느낌과 생각을 글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담았다. 그러나 저자는 ‘방법’은 스스로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지 못하므로 글쓰기를 행복해하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 두번 실패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의 글을 5만 편 이상 읽고 2만 편 이상 답글을 썼던 경험을 토대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글쓰기 노하우를 부모들에게 전해준다. 1분 글쓰기, 일기 쓰기, 시 쓰기, 주제 통합 글쓰기, 조사 보고서 등 갈래별 글쓰기 사례들과 글다듬기까지 다루고 있다.

이대웅 기자

##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귀국자동차 운송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 시내이사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최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 타주이사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시스코, 베이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자동차 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리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회사를 전문



##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AAPI) Faith Leaders Engage in Social Issues at the Capital Race Relations, Immigration, Human Trafficking, and Mental Illness Among Issues Discussed

The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AAPI) faith community makes up a significant portion of America's population today, but it seems the community still has a distance to cover in terms of spreading awareness of its specific interests and needs to the public, having a strong voice in social issues that affect the nation, and being recognized for its contribution to the greater society.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a conference that takes place at Washington, D.C. hosted by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is one of the spaces in which the AAPI faith community is given the opportunity and platform to voice their interests and concerns, and their opinions on current issues affecting the nation. AAPI faith leaders are also able to connect with each other and with those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work together in serving the community. The eighth annual LTC took place from Monday to Wednesday this week, with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panels with leaders in the government, a prayer breakfast, and a White House briefing.

Notable leaders in the public sector who were present at the summit include Jannah Scott, the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in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Mark Brinkmoeller,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s of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iana Yu, the Advisor of the White House Initiative on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s (WHIAPI); David Kim, the Associate Administrator of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Grace Choi, the Policy Advisor for the Secretary's Office on Global

Women Issues in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roughout the conference, participants discussed pressing issues affecting the nation today, including race relations, as well as issues that particularly affect the AAPI community, such as immigration, and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n peninsula.

Though direct quotes were prohibited from being used in media from the White House briefing, leaders in the public sector who participated in the White House briefing as well as other panels during the summit expressed the necessity of the AAPI community voicing their concerns and opinions. Some added that the very act of the AAPI faith community gathering in D.C. to share their perspectives makes a statement to the governing leaders.

### Standing in Solidarity

Among the various issues that were discussed during the conference, the AAPI faith community expressed their own experiences of pain and frustration with systemic injustice, as well as their experiences with the riots that have ensued after the recent death of Freddie Gray.

Lovely Varughese, an Indian American woman, shared the story of her son's death, and the frustration she experienced while trying to fight for justice on behalf of her son, Pravin, who died in February of 2014. Pravin's body was found in the woods with multiple bruises and injuries, but the coroner listed his cause of death as hypothermia, and "the police suspected no foul play," Varughese said. Over a year later, Pravin's case is still open, and Varughese and Pravin's supporters are still advocating.

"It's hard sharing this painful story, but I know I need to keep



Over 100 AAPI faith leaders participated in KCCD's 8th annu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in Washington, D.C.

fighting for this and sharing this story because I want to help prevent other families from experiencing this," Varughese said.

Priscilla Baek, a senior manager of public affairs for Mitsui & Co., shared the pain of the families who own small businesses in the midst of riots.

Baek's family owned a small beauty supply shop during the times of the 1992 L.A. Riots, and said that as a result, she felt compelled to speak about her experiences when the Baltimore riots broke out.

"We have to remember that we're in this together, and we need to work together to get out of the cycle of poverty," Baek said.

Mee Moua, the executive director of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dded that in such circumstances as these, the AAPI community standing in solidarity with other ethnic groups is crucial.

"As Asian Americans, we need to disrupt the social and racial order,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others by finding our commonalities," Moua said.

The issue of civil rights, and the federal 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were also discussed at the White House briefing.

### The "Ministry of Presence"

As social issues were being discussed during the conference, one of running themes of the summit has been that of the "ministry of presence."

Mark Keam, one of the delegates of the Virginia House of Delegates in the 35th District, used the term when he spoke during the first night of the summit, saying that one of the rules to success is simply being present, and serving in whatever means in every situation.

This idea seemed to penetrate the small group discussions and panels throughout the conference. Many leaders agreed that members of the AAPI faith community have been making progress in civic

engagement thus far, but to make even greater headway, the community must be present and involved.

"Many people tend to think that someone else is dealing with the social issues, so they don't feel the need to be engaged themselves," Diana Yu said during a panel on Tuesday. "But there needs to be engagement with conviction even in civic issues. Mission is not only out there, but even within the government."

David S. Kim of the U.S. Dept. of Transportation said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impact if the AAPI faith community held active commitment to civic engagement and public service just as much of a dominant and important part of life as the work, family, and church.

Mee Moua encouraged the AAPI faith community to host civic activities such as voter registration drives, and to show up for the Census 2020, because "when we're counted in the numbers, our voice will matter."

## "Joy Strengthens the Bond Between Parent and Child" Young Nak Couples Glean from Parenting Seminar

One of the greatest and most significant callings of a Christian is that of parenthood, as children would eventually grow to be the next leaders. As such, ensuring that children are raised up in healthy families and nurtured to be healthy followers of Christ is a significant concern for parents and churches, and churches have been vesting more attention to the nurturing of children. An aspect that undoubtedly and deeply affects the healthy nurturing of children is the very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Everyone wants a strong bond with their children," John Loppnow, the pastoral care pastor at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YNCC), said at YNCC's parenting seminar on Sunday. "And joy is what strengthens the bond."

Loppnow, who also has a background as a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MFT), shared several ways parents could help to keep joy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further strengthen that bond.

First and foremost, Loppnow explained that the most important aspect to maintaining joy in the parent-child bond is the joy that comes from the bond between the parent and God. Loppnow pointed to John 15:9-12, and said that one of the ways joy is maintained in the parent's relationship with God is keeping His commands.

"If there are two things that you could take away from this seminar, it should be that first, God loves you and is glad to be with you, always," Loppnow said. "And second, a true life of joy comes from following Him and putting His words into practic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 last six months, what has the Holy Spirit been leading you to learn and grow in Him? And what about the next six months? Maybe you could even choose an aspect to grow in together as a family," Loppnow suggested, encouraging parents to continue in striving to become more like Christ and follow Him.

Loppnow also shared several

practical ideas on maintaining joy and strengthening the bonds in the family. One of the ways to maintain joy in the family bond is to understand how joy is communicated, he said. If relational joy is understood as being glad to be together with someone, Loppnow explained that that joy is expressed differently by different people.

"You could list ten things as a family on how you are going to communicate joy to each other," Loppnow suggested. "And individually, you could also list how you plan on communicating joy to the neighbors around you in the world."

The frequency and the quality of the interaction between two people is also one of the major ways through which the strength of any relationship is determined, Loppnow said. "The strength of the bond can withhold the people together through the hard times," he added.

Loppnow also mentioned a more scientific aspect that affects relationships: relational circuits (RCs). RCs are akin to switches in the brain, and once turned off, one would stop seeing other people relationally, but rather, see "other people as being in your way from achieving your goal, or see them as tools to use or manipulate to achieve what you want." When RCs are on, "you experience oth-

ers as relational beings, and you are concerned about what others are thinking and feeling. You feel the desire for connection and joy in being together."

Understanding this concept helps to maintain bonds because major conflicts tend to arise from the RCs being turned off. Loppnow shared his experiences of taking time to turn his RCs back on, or essentially, taking time to calm down in the midst of a conflict, and then coming back to reconcile afterwards. These actions to take time to calm down instead of acting out of anger also model for the children the appropriate behavior during conflict, he added.

This was the third such parenting seminar that took place recently at YNCC over the past year. The deacons in charge of the marriage and family ministries at YNCC shared they hope to have at least one parenting seminar and one marriage seminar each year. These seminars provide opportunities for couples to not only learn from seminar speakers, but also from each other, as the seminars provide time to share experiences and ideas and learn from one another. Newcomers to the church could also find that these seminars offer yet another opportunity to become more involved and connected to the church.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hosted a parenting seminar for couples on Sunday.

ers as relational beings, and you are concerned about what others are thinking and feeling. You feel the desire for connection and joy in being together."

When asked about how a church could serve younger generations, Pastor Paul Lee, the current pastor of the English ministry (EM) at Potter's Community Church, focused on two main aspects: being selfless toward one another and simply enjoying ministry.

The Korean ministry (KM) at Potter's, for example, has been exemplifying selflessness toward the EM, said Lee. To show support, the KM, which has a much larger congregation, has been investing in them financially, and has been providing food at various EM events, Lee said.

He further explained that the KM has been like a parent to the EM, and that they had always been a firm supporter whenever EM needed their help. The two ministries have had many activities together, such as picnics, beach trips, and Christmas festivities. Lee said that Pastor Patrick Lim, the senior pastor of Potter's, is likely a major influence to the KM's approach toward EM.

"Pastor Lim tries to educate the first generation to sacrifice for the next generation," he said. "I think the older generation needs to show the second generation first hand what it means to sacrifice. I believe this is the Jesus way – there might no promise of return, but sacrificing first despite that."

He added that the EM also must show selflessness and humility to the KM. "Neither can demand sacrifice, but both can offer it," said Lee.

Lee explained that the KM and EM relationship is important because it is one of the factors that may affect young people's decision to stay in or leave the church. He said that young people may feel slightly uncomfortable in the presence of adults, and that when the older members of the church intentionally make an effort to show they care about and want to invest in the younger generation, it will make a difference.

"Church also just needs to be fun and exciting," he added. "Young people face so many temptations in

the world, and church could offer better alternatives to those temptations."

"It's difficult because these temptations are 'cool.' They don't understand how it has a grip on them or what it means to be truly free. They understand freedom in the sense of having the freedom to do those things, but they don't understand that true freedom is being able to say, 'I don't need those things.'

Lee has been to jailhouses, lawyer's offices, and courthouses while serving younger people. But he said that one of the greatest joys that he has experienced serving in EM is seeing young people such as these be transformed by Christ and see them growing and thriving in Him, he explained.

Group Bible studies and sharing time, basketball, playing pool, and ping pong are among some of the activities that Lee has organized to create a space where EM members can have fun within the church, and also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Lee added that the leadership's excitement for ministry also has an effect on the church members. Lee encouraged pastors to enjoy ministry together by developing trusting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Ministry itself is so difficult; with no partnership, it would be even more so," he said.

"When pastors and leaders are having fun, kids will naturally want to join in on the fun," he explained. "And our spiritual walk should be enjoyable."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b>55/55</b> ppm	C454e Colour B&W <b>45/45</b> ppm	C364e Colour B&W <b>36/36</b> ppm	C284e Colour B&W <b>28/28</b> ppm	C224e Colour B&W <b>22/22</b> ppm
Dual Scan ADF Duplex	Dual Scan ADF Simplex	Emperon Driver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1

\*2

Mobile  
Support



\*Optional : Fax & Finisher